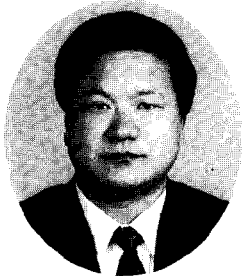




기획시리즈



최명섭 / 임업연구원

# 자귀자무

과명 : 콩 과  
 학명 : Albizzia  
 julibrissin  
 영명 : Silk Tree, Silk  
 Flower  
 한명 : 合婚樹, 合歡樹  
 일명 : ねむのき



▲자귀나무 전경



▲자귀나무 꽃

자귀나무 는 겨울잠을 오래 잔다. 목련과 매화에 이어 진달래 철쭉꽃이 지고난 5월하순 장미꽃이 필 무렵 겨우 새잎이 돋아나기 시작한다. 대추나무 회화나무등과 함께 잎을 늦게 피우는 잠꾸러기로 유명하다. 이 나무는 일단 잎이 활짝 피면 미모사잇같이 마주 붙은 잎끼리 밤에 붙어 잔다. 이 수면운동은 밤뿐만 아니라 흐린날이나 혹서(酷暑)의 한낮에

도 마주 접하는데 이 현상은 광선과 온도의 영향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잎이 붙어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붙어서 잠을 잔다고 잠자리에 비유하여 合婚樹, 合歡樹, 有情樹 등으로 부르고 부부의 금실을 위해 예로부터 앞마당에 많이 심었다.

### 1. 생태적 특성

황해도 이남의 표고 50-700m에서 자라는 낙엽활엽소교목으로 높이가 3-5m에 달하고 간혹 수고 10m 이상 가슴높이 직경이 30cm에 달하는 나무도 있다. 산기슭이나, 계곡의 토심이 깊고 양지바른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란다. 중부이북지방에서는 추위에 약하여 간혹 동해를 받는 경우가 있으나 뿌리에서 맹아가 재발생하며 생장은 빠른 편이다.

공해에 견디는 힘은 약한 편이나 서울 시내의 고궁이나 학교, 가정정원에도 많이 식재되어 있다.

### 2. 형태적 특성

잎은 어긋나며 우수 2회 이상 복엽이고 소엽은 길이 6-15mm, 넓이 2.5-4.0mm로서 양면에 털이 없거나 뒷면 맥위에 털이 있다. 전년도에 자란 가지 끝에서 길이 5cm 정도의 꽃자루가 생겨서 15-20개의 꽃이 우산모양으로 달리며 꽃은 양성으로 6-7월에 연분홍색 꽃이 공작과 같이 피어 아름다움을 약 1개월정도 감상할

수 있고 9-10월에 콩깍지같은 긴 열매가 익으며 길이 15cm 정도의 꼬투리에 5-6개의 종자가 들어 있다.

유사종으로 왕자귀나무가 있는데 잎이 족제비싸리같이 크며 수술이 많고 꽃의 색깔이 백색인 것이 다르다. 왕자귀나무는 제주도, 흑산도, 어청도 등에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나 거의 멸종되고 현재는 목포 유달산의 일부 지역에만 자생하고 있는 한국 특산으로 학술적인 면에서 볼 때 보존 가치가 크다.

### 3. 조경수로서의 활용

꽃이 귀한 7월의 무더위속에 피는 자귀나무의 연분홍색의 꽃은 타오르는 불꽃같이 아름답다. 새로 나온 가지끝에 10여개씩 매달린 꽃봉오리는 2-3일 간격으로 한달간 망울을 터뜨린다. 수백개의 명주실이 연분홍색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으로 연이어 붉은 꽃을 피우는 이 꽃은 관상기간이 길뿐만 아니라 향기마저 짙어 집안 분위기나 주변의 경관을 더욱 향긋하게 만들어 준다. 연분홍색 꽃은 꽃잎대신 거의 10여개의 긴 수술이 꽃을 이룬다.

나무줄기는 굵거나 약간 누운 형태로 볼품이 없지만 일단 진록색의 새잎이 돋아나고 불꽃같은 연분홍꽃이 짙은 향기를 뿜으며 피어 오를 때에는 창조주의 걸작품인 듯한 아름다움을 과시하게 된다.

잔잔한 잎과 꽃이 아름다워 정원이나 공원, 도로주변에 군상으로 식재하거나 경사면 아래쪽에 식재하여 내려다 보는 것도 경관형성에 좋을 것이다. 특히 병충해가 거의 없어 관리가 용이하며 수형이 아름다운 좋은 조경수이다.

### 4. 번식법

주로 종자로 번식하며 가을에 종자가 덜 익은 10월쯤에 따서 직파하면 발아율이 높다.

파종용 흙은 모래와 부엽토를 반반씩 섞어서 사용하며 화분이나 상자에 뿌려서 반그늘에서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면 많은 묘목을 생산하게 된다.

간혹 포기 나누기를 하는데 원줄기 주변에 발생하는 줄기를 휘묻이 하듯하여 뿌리를 내려 이식하면 새로운 개체를 얻을 수 있다.

접목은 화분에 키우고자 할때 화분에 파종하여 키운후 그것을 대목으로 하여 접목한다.

### 5. 그밖의 용도

시골에서는 소들이 그 잎을 잘 먹는다 하여 소쌀밥이라 부르기도 하며 수피는 함환과라하여 심신불안, 소종등에 사용하며, 꽃봉오리는 6월에 처음 개화하였을때 채취한 것을 함환화라 하고 개화하지 않은 봉오리를 채취한 것을 함환미라 하여 한방에서는 이기, 안신, 건망, 타박상 등에 사용한다.